

패션&스타일

'데님 룩' 코디법



청원피스에 뿌띠 스카프를 하면 발랄함을 연출할 수 있다.



원피스·블라우스·속옷 등 무한변신

데님 소재 옷·신발·가방 등도 인기



靑 재킷 + 靑 바지

톤만 달리해도 산뜻하고 세련

올 봄 가장 주목받는 패션 소재를 꼽으라면 단연 '데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청바지+청재킷' 패션이 새로운 유행으로 돌아왔다. 바로 '오버 데님룩'이다.

80년대 학생들에게 '조다쉬' 청바지 하나면 어찌 으쓱해지던 시절이 있었듯 이번 시즌엔 복고풍 데님패션으로 패션리더에 도전해보자.

◇청청패션으로 패션리더 도전=청바지+청재킷 패션'을 무작정 따라 하면 촌스러워 보이기 십상이다. 똑같은 청재킷을 입어도 색깔을 위아래로 달리하는 '톤온톤 코디'로 촌스러운 분위기를 피할 수 있다. 청바지를 어두운 빛깔로 입었다면, 셔츠는 가볍고 밝은 데님으로 선택하거나 다소 무게감이 있는 거친 소재에 실크처럼 얇고 부드럽게 가공된 데님을 곁들이는 식이다.

일관된 느낌을 주면서도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오버 데님룩' 연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코디 팁이다.

또한 데님 소재가 아니더라도 데님 느낌을 줄 수 있는 블루톤의 아이템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세련된 '오버 데님룩'을 완성할 수 있다.

촌스러워보였던 '스톤 워시 데님'(물이 빠진 듯 희끗희끗해 보이는 청바지)도 올 인기 아이템이다.

스톤워시 스키니진(스타킹처럼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에 데님 느낌의 '보이프렌드 재킷'(남자친구의 옷을 입은 것처럼 크다는 의미)이나 데님 소재 셔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또 스키니진에 블라우스 등 로맨틱한 느낌의 상의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다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인기 아이템 하나로 데님룩 연출=오버 데님룩이 부담스럽다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데님 아이템을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것도 좋다.

기본 스타일은 다양한 프린트 티셔츠와 함께 입는 것, 서로

다른 색상과 상의의 길이 차이를 주는 티셔츠와 매치하거나 독특한 소재의 프린트 티셔츠를 편안하게 걸치기만 해도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화사한 색깔의 데님 재킷이나 조끼를 원피스에 매치하거나 로맨틱한 느낌의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해도 세련된 느낌을 살리면서 데님룩을 즐길 수 있다. 데님 재킷도 과거 투박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파스텔 톤 등 화사한 컬러로 한층 더 여성스러워졌다.

데님 셔츠는 봄부터 여름까지 자유롭고 캐주얼 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데님 소재는 워싱 기법과 컬러에 따라 다양한 연출과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템으로도 여러 가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데님 원피스는 한 벌 만으로도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 스카프나 네크리스(목걸이형 장신구), 벨트를 활용해 멋을 내면 누구나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다.

◇원피스·블라우스·속옷 등 데님의 무한 변신=주로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되던 데님이 최근 들어 원피스, 블라우스 등 여성적 매력이 강한 패션 아이템에도 속속 적용돼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 신발, 가방, 속옷까지 다양한 패션잡화에도 데님 소재가 응용되고 있다.

'리바이스 바디웨어'는 올 봄 신상품으로 폴의 표면처럼 색이 바랜 느낌의 '풀칭 속옷' 언더진 블루 시리즈 12종을 내놓았으며 '데님워시 패이던트프랑스'는 스니커즈 스타일의 독특한 데님힐을 선보였다.

데님을 소재로 한 패션 액세서리는 발랄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계스진 박병진 매니저는 "복고풍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데님 등을 활용한 가볍고 캐주얼한 패션이 주목 받을 전망이다"이라며 "옷, 신발, 가방, 속옷까지 데님 소재가 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성스러운 느낌의 청재킷에 치마를 코디해도 좋다.



봄 여인의 스카프 연출법

뿌띠, 발랄한 스쿨룩 연출
꽃무늬, 의상과 조화 고려
애니멀, 세련·섹시미 과시

애매한 봄날씨에는 '스카프'가 효자 아이템이다. 스카프는 밋밋한 의상에 손쉽게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또 보온성 뿐만아니라 동시에 스타일도 살릴 수 있다. 최근엔 면·마 등으로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스카프는 우선 컬러나 패턴, 사이즈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우선 선명한 컬러와 사물·동물 등이 프린트된 '뿌띠' 스카프는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면 티셔츠와 함께 목에 꼭 맞게 두르면 깔끔한 스쿨룩을, 삼각형으로 접어 깔끔한 셔츠 칼라 안으로 넥타이처럼 매치하면 시크함에 여성미까지 더할 수 있다.

지난해 인기였던 호프, 지브라 등 애니멀 프린트는 색시미를 과시하기에 좋다. 더불어 세련된 이미지 연출에도 도움을 준다. 재킷 안에 살짝 엮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거나 여러벌 풍성하게 두른 뒤 끝을 짧게 매면 볼륨감 있는 포인트가 된다.

몇 년 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꽃무늬 프린트 스카프는 여성미를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다만 프린트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의상과 조화를 고려해 연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왜소한 체형이라면 풍성하게 리본을 연출하는 등 체형을 보완하는 데도 좋다. 스카프 매는 법을 제대로 알아둬 센스있는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손수건 사이즈 정도의 '뿌띠 스카프'는 사선으로 여러 번 접어 가는 모양을 만든 다음 목에 꼭 맞게 묶어 리본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살짝 다듬어주면 된다. '정사각형 스카프'는 삼각형 모양으로 사선으로 접은 후 한쪽 어깨 쪽이 더 많이 감싸지도록 걸친 후 다른쪽을 매듭짓는다. 셔츠와도 잘 어울리지만 여름에 민소매 의상과 매치하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삼각형 부분을 목 앞으로 오게 묶어 셔츠 안에 넣으면 별도 액세서리가 필요 없이 의상의 포인트가 된다.

'롱 스카프'는 가장 연출이 쉬운 스카프 중 하나다. 목과 가슴 사이 정도의 높이에 매듭을 만들어 넥타이처럼 느슨하게 매면 시크한 분위기도 나고 때론 부담스러운 뱃살을 감추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하늘하늘한 시폰 스카프라면 풍성한 리본을 만들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 된다. 매듭 없이, 혹은 목에 자연스럽게 한 번 두르거나 해도 충분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학부 특강 4주선	편입지원 서류 특강 4주선	편입면담 4주선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편입영어 전반을 통괄 이해한다. 특히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습하는 기법	대학편입 전문 100명교수선 - 100% 합격률 보장하는 4주선	대학편입학부 특강 4주선 - 편입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면접관과의 대화	편입면담 4주선 - 편입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면접관과의 대화
	문제풀이 특강반	편입영어 특강반과 더불어 4주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법			
편입수학	마지막반	편입수학의 기법과 학습유형과 그에 따른 전략을 연습하는 기법반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8088, 227-8088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					